

김낙영

약력

이운수

73년 3월 천안출생

92년 2월 서인천고 졸업

92년 3월 사범대 교육학과 입학

교육학과 1학년 1학기 학년대표

93년 교육학과 사회부장

교육학과 여성학회 '새벽' 활동

94년 교육학과 부학생회장

노동절 동국대 기획단 활동

제 10대 총여학생회 정후보자 입후보

74년 4월 서울출생

93년 2월 의정부여고 졸업

93년 3월 법과대 법학과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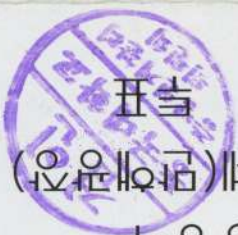
법학과 1학년 2학기 학년대표

94년 법과대 학술부장

법과대 신문사(준) 편집부 활동

노동자대회 학생연대회의 기획단 활동

제 10대 총여학생회 부후보자 입후보



표창 80/6 80L

(은은회) 80/8 80L

80/8 80L

(80/8) 80/8 80L

80/8 80L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80/8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뛰어넘어  
해방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따로  
또  
우리

제 10대 총여학생회 정 · 부후보자 김낙영 · 이운수 선거운동본부

정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자본과 상품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온갖 매체는 여성을 상품화 시키고

우리의 인식을 혼란하게 합니다.

여성이 여성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이제 우리의 자리찾기를 시작합니다.

정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

이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영이가

유치원에 다닐때,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로 태어났으면

중학교에 다닐때,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내가 좀더 예쁘게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성임을 거부하다가 그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존재에 좌절하고는

점점 소심해 졌던 나.

그러나 이제 선언합니다.

여성이기 이전에 당당한 한 인간임을.



윤수가 나영이가